

캔자스대학교의 한국학 장서

비키 푸 돌(Vickie Fu Doll)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중국학 및 한국학 사서

1. 캔자스대학교

캔자스주 로렌스에 자리하며 1865년에 설립된 캔자스대학교(KU)는 올해로 개교 150주년을 맞았다. 본 대학은 공적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써 널리 알려져 있다. 1909년에는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공립 및 토지 무상 공여대학교연합’(Association of Public and Land-Grant Universities)의 회원기관이기도 하다.¹⁾ 2016년 현재, 학부생 19,245명 및 대학원생 8,755명 등 미국 전역과 전세계 105개국에서 온 28,00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2016년 가을 현재, 로렌스 캠퍼스와 에드워즈 캠퍼스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학생은 2,306명으로 두 캠퍼스의 전체 학생 중 약 10%를 차지한다.²⁾ 2012년 가을 이래 평균 55명의 한국인 학생들이 박사과정에 등록되어 있다.³⁾

미국 뉴스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에 따르면 “캔자스대학교의 학생-교수 비율은 16:1로, 전체 강의의 47.9%가 수강생 수 20명 미만이다.”⁴⁾ 2,600여 명의

1) 공립 및 토지무상공여대학교연합(APLU): 기관 소개 <http://www.aplu.org/members/our-members/index.html>

2) iHawk: 외국인 학생과 연구원 및 직원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외국인 학생 등록 동향. <https://ihawk.ku.edu/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Trends&isLoaded=yes>

3) Ibid. <https://ihawk.ku.edu/dashboard/index.cfm?graph=studentEnrollmentTrends&isLoaded=yes>

4) 미국 뉴스월드리포트: 고등교육: 우수대학: 캔자스대학교. <http://colleges.usnews.rankingsandreviews.com/best-colleges/ku-1948>



[그림 1]-[그림 2] 캔자스대학교 캠퍼스

출처: 캔자스대학교 웹사이트. [사진] <http://ku.edu/about/> 에서 검색

교수진이 로렌스의 본 캠퍼스를 포함한, 캔사스주 내 다섯 개 캠퍼스에서 강의를 한다. 본 대학의 13개 단과대학과 100개 학과는 특수교육, 공공행정, 약학, 사회복지 등 142개 학부과정과 231개 대학원 과정을 제공한다. 농구를 발명하고 캔자스대학교의 첫 농구 코치를 역임한 제임스 나이스미스(James Naismith)는 본 대학이 배출한 저명인사 중 한 명이다.

2. 동아시아학센터(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또는 CEAS)

동아시아학센터는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 기금을 받아 1959년에 설립되었다. 국가방위교육법은 1957년 구소련이 스푸트니크 위성을 발사한 데 대한 대응으로 미의회가 제정한 것이다.⁵⁾ 1960년대에 미국에서 설립된 동아시아학 장서의 3분의 1이 국가방위교육법이나 멜론(Mellon) 기금, 포드(Ford) 기금, 풀브라이트-헤이즈(Fulbright-Hays) 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았다(Doll, 2010, p. 244). 본 센터는 미국의 대평원 지역⁶⁾에서 유일한 동아시아학센터이다. 본 센터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동아시아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커리큘럼 전반에 걸쳐 동아시아학을 증진하는 것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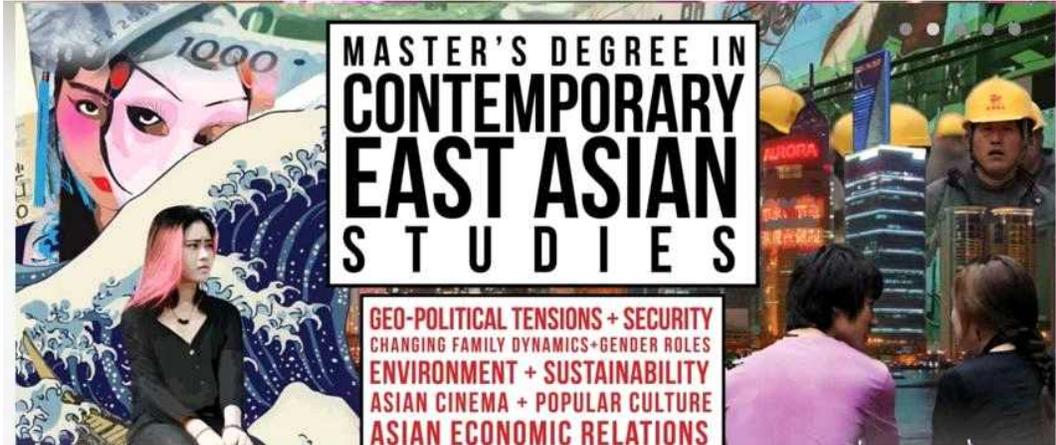
[그림 3] 동아시아학센터가 자리한 베일리 홀(Bailey Hall)

출처: 플리커(Flickr). [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cortneymckay/5068669331/sizes/l> 에서 검색.
저작권: cortneymckay.

5) 미 상원: 상원 역사, 1941-1963. http://www.senate.gov/artandhistory/history/minute/Sputnik_Spurs_Passage_of_National_Defense_Education_Act.htm

6) 대평원은 미시시피강과 록키산맥,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 사이의 초원지대에 자리한 주들을 일컫는다.

7) 동아시아학센터: 개요. <http://ceas.ku.edu/overview>



[그림 4] (오른쪽) 동아시아학센터 프로그램 포스터

출처: 동아시아학센터 웹사이트. [포스터] <http://ceas.ku.edu/>에서 검색

본 센터는 현대동아시아학 석사학위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중국과 일본, 한국의 현대 정치와 경제, 사회, 근대사에 대한 학제간 전문성을 획득하도록 돕고 있다. 본 센터는 또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Foreign Area Officers 또는 FAO)를 위한 석사과정인 ‘국제적 맥락에서의 현대 동아시아 외교학’(Foreign Affairs Studies of Contemporary East Asia in a Global Context)을 제공한다. 본 센터에 따르면 “KU는 미국 내에서 12개월 과정으로 동아시아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석사과정을 제공하는 소수의 대학 중 한 곳이다.”⁸⁾

본 센터와 해외연수사무국(Office of Study Abroad)은 중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는 또 국제프로그램 사무국(Office of International Programs)과 협력하여 객원 연구원들을 지원하고, 구직 관련 행사들을 조직하고, 직접교류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본 센터는 동아시아학 전공자들을 위한 장학금과 상을 수여하며, 심포지엄과 전시회, 공연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한다. 또 학술 및 전문직 경력, 해외 인턴쉽, 해외 연수 기회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자문을 제공한다. 대학 밖에서 본 센터는 공립학교, 지역단체, 기업, 공연예술센터, 박물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초청한다.⁹⁾

8) CEAS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석사 프로그램 <http://ceas.ku.edu/overview-0>

9) 동아시아학센터: 개요 <http://ceas.ku.edu/overview>

2.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그림 5]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가 자리하고 있는 캔사스대학교 웨스코 홀(Wescoe Hall)

출처: 캔사스대학교 정치사회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 Social Research) 홈페이지.

[사진] <http://ipsr.dept.ku.edu/pics/bldgs/wescoe.jpg>에서 검색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동아시아 언어, 문학, 문화(중국, 일본, 한국, 티벳, 위구르) 분야의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제공하며, 법학부와의 협력 하에 법학 박사/석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¹⁰⁾ 학생들은 인류학과, 건축학과, 경영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육학과, 미술학과, 지리학과, 정부정책학과, 역사학과, 미술사학과, 언론학과, 정치학과, 종교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연극영화학과, 여성학과를 통해 동아시아 중점으로 석사나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대학 내 29개 학과와 10개 단과대학에 소속된 67명의 교수들이 동아시아 집중 학사 학위를 지원한다. 동아시아 강의를 가르치고 동아시아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교수들이 센터의 핵심 구성원들이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학사 및 석사 학위에 더하여, 본 학과는 또 2개의 준석사

¹⁰⁾ 법학-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공동 학위 프로그램. <https://ealc.drupal.ku.edu/joint-jdma>

수료(Graduate Certificate)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하나는 동아시아문화 준석사 과정으로 학생들은 “동아시아의 세 국가 중 하나를 전공하지만, 다른 학제(미술사학, 경영학, 영화학, 역사학, 언어학, 정치학, 종교학, 여성학, 젠더 및 섹슈얼리티학)의 관점에서 해당 국가를 연구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는다”.¹¹⁾ 다른 준석사 과정은 제2언어학(Second Language Studies)으로 “언어·문학·문화 단과대학, 언어학과 및 언어·문학·문화 단과대학과 연계된 기타 학과에 소속된 대학원생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준석사는 외국어·문학·문화 및 이론언어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캔자스대학교에서 응용 언어학과 언어교육 집중을 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¹²⁾

언어교육센터(Language Training Center)¹³⁾ 프로그램은 2011년부터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또는 DOD) 직원들에게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제공해왔다. 캔자스대학교는 2013년 가을부터 지정 언어교육센터로 활동해왔다. 총 9개 대학교가 지정 언어교육센터 지위를 갖고 있다. 언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은 군사언어학자, 정보 분석가, 특수작전부대, 해외특정지역 전문장교, 다목적부대 등 다양한 미 국방부 직원들의 언어 및 문화 교육 요구들을 지원해왔다.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다양한 교육 전달 방법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다섯 개 언어교육센터 중 하나이다.¹⁴⁾

4. 한국학 프로그램

캔자스대학교는 캔자스주 내에서 유일하게 기초, 중급, 고급 과정으로 한국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어 강사들은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능력을 동등하게 중시한다. 한국어 프로그램은 한국어 원어민이 직접 가르치는 강의와 반복 연습을 포함한다. 2001년 이후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는 1990년대 후반 초기 한국학 교수직이 한국 국제교류재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원된 이후 전일제 한국학 교수들을 채용해왔다. 미술사학과는 2013년에 역시 국제교류재단의 후원 하에 한국미술 사학자를 채용하였다.

11)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 준석사 과정 <https://ealc.ku.edu/gco>

12)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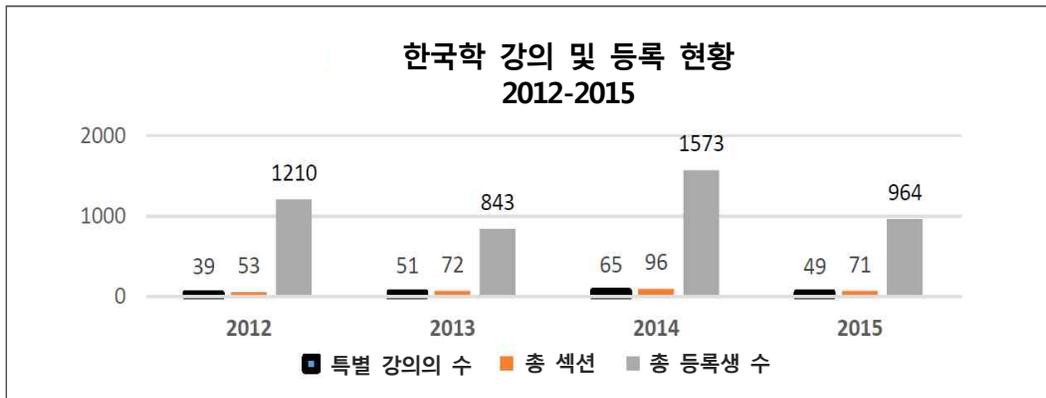
13) 언어교육센터 프로그램: 미국 국방부 계획 <http://www.dodlrc.org/>

14) 캔자스대학교 언어교육센터 <http://lrc.ku.edu/>

역사학과는 최근 몇 년간 한국문화사 객원 교수를 두고 있다. 다른 학과와 전문 단과 대학들의 경우에는 경영학과, 교육학과, 미술학과, 지리학과, 신문방송학과, 언어학과, 정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여성학과에서 한국인 전문가를 교수진으로 채용했다. 2016년 현재 21명의 한국학 교수들이 29개 섹션에서 26개 강의를 제공했으며, 봄학기의 등록생 수는 총 436명이다.¹⁵⁾

캔자스대학교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내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들 프로그램은 상호 교환 파트너, 컨소시엄 교환 프로그램(국제교환학생 프로그램), 직접 등록, KU 교수 지도 프로그램 등과 같은 학기/학년 프로그램들을 운영한다.¹⁶⁾ 정부정책 및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사회복지·문화·언어·종교, 영어교육 실습 등 교수가 이끄는 소수의 단기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진행되었다. 중국학과 일본학에 비하여 한국학 프로그램은 규모가 작지만 매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대학 내에서 한국학의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림 6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제공된 한국학 강의, 특별 강의의 수, 총 섹션, 총 등록생 수를 정리한 것이다. 모든 강의가 해마다 제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림 6] 캔자스대학교 한국학 강의와 섹션, 등록 현황, 2012-2015. 출처: DEMIS

15) 데이터는 DEMIS(Departmental Executiv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의해 생성되었다. 한국학 강의와 한국학 교수 현황은 다음을 참조한다. <http://guides.lib.ku.edu/c.php?g=94977&p=616534>

16) 캔자스대학교 국제학술교류협정기관들(2015년 3월 현재) <http://international.ku.edu/sites/international.ku.edu/files/docs/Directory%202015%20-%202016.pdf>

5. 캔자스대학교 도서관(The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또는 KUL)



[그림 7] 캔자스대학교 왓슨도서관(Watson Library)

출처: 플리커. [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behind_blue_eyes/3374872959/sizes/l/ 에서 검색.

저작권: J.V. Brennan.

캔자스대학교 도서관은 연구도서관연합(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의 회원이며 캔자스주에서 가장 큰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로렌스에 있는 KUL의 본 캠퍼스는 470만 중 490만 권(전자책 940,000 권 포함)을 소장하고 있다. 회계연도 2015년에는 150만 명의 이용자들이 KUL을 방문했다. 같은 기간에 175,000여점이 대출되었고, 190만 편의 논문이 다운로드되었다. 다른 도서관에 대출제공한 자료 건수는 31,746점이었고,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신청 자료 건수는 19,186점이었다. KUL의 직원은 전문 사서 97명(42%), 지원부서 직원 77명(34%), FTE(전일제 노동자 수로 환산한) 학생 조교 55명(24%)이다. 도서관은 출판, 학술커뮤니케이션, 오픈 액세스, 주제 전달 및 서비스 모델에서의 최근 변화로 인해 2012년에 대대적인 조직 변화를 거쳤다. KUL은 계속해서 학습을 혁신하고, 자원과 전문성, 투입을 통해 지역 및 국내외 학자들을 지원하고 있다.¹⁷⁾

17)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소개 <https://lib.ku.edu/about>

KU 대학 교수회, 교무처장, 총장은 2009년 4월 30일에 오픈 액세스 정책의 시행을 승인했다.¹⁸⁾ 이로써 캔자스대학교는 미국에서 오픈 액세스 정책을 채택한 최초의 공공 기관이 되었다. 그 이유는 “캔자스대학교의 교직원이 연구와 학문의 지적 성과를 가능한 널리 공유하고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을 약속하기” 때문이었다.¹⁹⁾ 이 정책에 따라 교수들은 대학의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인 KU ScholarWorks(KU 학술자료)에 학술 논문들을 기탁하도록 되어 있다.²⁰⁾ 2011년에 캔자스대학교는 “과학 및 인문학 지식에 대한 오픈 액세스”에 대한 베를린 선언(*Berlin Declaration*²¹⁾) on “Open Access to Knowledge in the Sciences and Humanities”)에 서명했으며, 오픈 액세스 정책 기관 연합 (Coalition of Open Access Policy Institutions)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²²⁾

6. 동아시아도서관(East Asian Library)

1950년에 대학 당국이 중요한 동아시아 자료들을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²³⁾ 교수들이 착수한 자료 선정 외에 동아시아 자료들을 관리할 도서관 직원이 없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1964년이 되어서야 설립되었다. 1958년에 교환 및 기증 담당사서인 칼 로(Karl Lo)가 채용되어 동아시아도서관의 첫 사서가 되었다. 이후 동아시아도서관 장서는 대평원 지역 최대 규모로 성장했고, 동아시아학에 대한 18개 지정 국가자원센터(National Resource Centers, 2015-2018) 중 하나가 되었다.²⁴⁾

18) 캔자스대학 학문을 위한 오픈 액세스 정책 <http://policy.ku.edu/governance/open-access-policy>

19) Ibid.

20) KU ScholarWorks <https://kuscholarworks.ku.edu/>

21) 과학 및 인문학 지식에 대한 오픈 액세스에 관한 베를린 선언 <http://www.berlin9.org/>

22) COAPI는 오픈 액세스 정책을 수립한 북미지역 기관들의 대표자들이 모여 있다. <http://sparcopen.org/coapi/>

23) 동아시아 장서의 전체 역사와 세부 내용은 Doll, V. (2010)를 참조한다.

24) 미교육부의 국제 및 외국어 교육사무국(International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Office)이 운영하는 ‘타이틀 VI’(Title VI) 프로그램은 미국의 고등교육기관들이 국제 연구와 세계 언어 관련 역량을 증진하도록 기금을 제공한다. 타이틀 VI 센터(Title VI Centers)는 전세계의 특정 지역 연구, 언어 교육, 해외 연구, 국제학 및 외국어에 대한 강의 등을 위한 국가 자원의 역할을 한다. <http://www2.ed.gov/programs/iegpsnrc/index.html>



[그림 8] 왓슨 도서관 5층에 자리한 KU 동아시아도서관 참고열람실과 국제장서부서(International Collections Department)(동쪽 건물)



[그림 9] 5층에 자리한 스터디 공간과 동아시아 서가(서쪽 건물)

미술, 음악, 경영 관련 주제들은 각각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약 6분의 1 가량이 고밀도 보존시설인 도서관 분관(Library Annex)에 보관되어

있으며, 이용자가 지정한 대출데스크에서 2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다.

2015년에는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또는 CEAL)가 장서 규모 측면에서 미국 내 공립대학 도서관 중 동아시아 장서 규모 11위에 올랐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²⁵⁾ 동아시아도서관의 전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기타 동아시아어 자료는 인쇄자료 330,119책, 저널 11,820종(인쇄본 3,770종 및 전자본 8,050종)과 기타 자료 13,200점(필름 및 DVD 2,000점 포함)이며, 동아시아학 전자 데이터베이스 35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²⁶⁾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중 다수는 다양한 주제 데이터베이스와 통합된 다양한 주제 단위를 가지고 있다. 장서는 또 티벳, 몽고, 위구르어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환 및 기증 자료들을 포함해 매년 약 3,500책이 동아시아 장서에 추가된다. 동아시아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저널 형태의 연속간행물 중 다수는 2000년 이후에 구독된 것이다. 단행본은 전자책의 이용 가능성, 유용성, 지속 가능성과 공급자에 따라 인쇄본과 전자본을 모두 구입한다. 또 모든 동아시아도서관의 자료들은 대학 도서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다.

본 도서관의 동아시아 장서는 전근대 중국, 일본, 한국 미술사와 역사, 문학, 종교, 문화학이 강점이다. 주요 미술사의 경우는 중국·일본·한국의 그림, 전통적인 중국·일본·한국의 불교 미술과 문화, 근현대 일본·한국 시각예술, 다량의 에도시대(1615-1868) 그림과 우키요에 목판화 컬렉션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중국·일본 미술사와 역사, 불교학 장서는 북미지역 장서 목록 프로젝트(North America Collection Inventory Project 또는 NCIP)의 4단계(선행 연구)에 속하며, 동아시아학은 일반적으로 NCIP의 3단계이다(Reed-Scott, 1988).

25) 1989년 이후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JEAL) < <http://scholarsarchive.byu.edu/jeal/> > 은 매년 2월호에서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CEAL)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북미지역학 장서에 관한 데이터 중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 통계 자료는 북미지역의 동아시아 도서관 및 박물관 장서와 그들의 서비스, 직원 규모, 지출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이 통계에 더하여, CEAL 통계위원회(CEAL Statistics Committee) 위원장은 2000년 이후부터 캔자스대학 도서관에서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eal.lib.ku.edu/ceal/php/index.php>> 를 구축하여 관리해왔다. 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1957년 이후의 북미지역 동아시아도서관과 박물관 장서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고 있고, 이 데이터 세트 내의 통계 데이터는 186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북미지역에서 1957년 이후에 발행된 대부분의 동아시아 장서 통계에 관한 참고 문헌은 <<http://ceal.lib.ku.edu/ceal/PHP/STAT/citation.php>>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 데이터 세트와 보고서는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116>>에서 접근이 가능하다.

26) KU 동아시아학 전자자료(East Asian Studies Electronic Resources) http://guides.lib.ku.edu/ea_e-resources

10여 년간 동아시아도서관의 장서개발은 정기간행물(전문)의 현재 및 과거 발행본, 말뭉치 텍스트(corpus text), 한국학 전자 자료 등 핵심 전자자료들을 추가하고, 특히 전자 형태의 참고장서를 갱신하고, 데이터베이스 구독을 평가하고, 보존용 모든 인쇄자료를 검토하고, 전자저널 논문을 데이터베이스 구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인쇄본 학술지를 취소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지난 십여 년간 신규 수집 활동은 일본 애니메이션, 초기 중국의 고고학적 발견들에 대한 1차 자료, 중국·일본·한국의 현대미술사, 한국 미술사에 역점을 두었다. 이러한 자료의 수집은 전통적인 강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구축과 동시에 신입 교수 강의 및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국가자원센터 도서관 중 하나로써, 동아시아도서관은 동아시아어 자료가 거의 없는 기관의 학자들이 우리 대학의 동아시아도서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출장 보조금을 제공한다.²⁷⁾

6.1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

6.1.1 범위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는 1960년대 초에 고전 및 언어 사전들의 수집으로 시작되었으며, 1970년대 도서관의 연방기금이 축소되면서 종료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도서관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기금을 제공한 객원 연구원 직위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에 한국어 자료들을 제한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2001년에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의 새 직위가 영구직이 되면서 이 장서는 다시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수집된 주제는 인문사회과학과 언어·문학·문화학, 미술사·역사·고고학, 정치학과 정부정책, 대중문화·종교·교육 분야의 참고 자료들을 포함했다. 장서의 구성은 인문학 70%, 사회과학 20%, 일반 및 참고자료 10%로 이루어진다. 동아시아도서관은 또 현대의 한국 장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국제교류재단과 국립중앙도서관 프로그램으로부터 단행본들을 기증받으며,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 아카이브로부터 DVD들을 기증받고 있다. 멀티미디어 자료들은 1996년 이후부터 수집되었다.

²⁷⁾ 동아시아도서관 출장 보조금 <http://guides.lib.ku.edu/c.php?g=94980&p=618328>

6.1.2 강점

한국학 장서의 강점은 미술사(조선시대 그림, 전통 불교미술, 한국 미술과 문화), 중국-북한 국경지대로부터의 4-6세기 고고학적 발견들(다수가 북한 출판물), 언어와 문학, 민속학과 종교를 포함한다. 타이틀 VI 기금을 받는 국가자원센터 도서관으로써, 지역 학생과 교육자들을 위해 대중문화 DVD, 영화, 한국에 관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용 어린이 도서들을 수집해왔다.

6.1.3 우선순위

지난 십 년간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학 장서는 조선시대 후기의 미술사, 전통적인 불교미술과 문화, 도자기, 식민지 시대의 시각예술, 대중문화를 우선순위로 두었다. 결과적으로, 한국학 장서는 미술사와 역사, 종교학에서 중국의 명·청 왕조, 일본의 전근대시대 장서들을 보완한다. 한국학 장서가 비교적 적지만, 날로 확장되는 한국학 프로그램과 학생 및 교수들의 연구 수요들을 지원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다.

6.1.4 평가

2008년에 본 센터는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의 한국학 장서 컨설턴트인 이효경을 초청하여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이 장서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충족하는지를 알아내고 개선될 수 있는 장서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이효경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고 중요한 조언들로 언어학 및 문학 자료를 더 구입하고,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고, 참고자료를 갱신하여 추가하고, 일부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료들을 소급 구입할 것을 권고했다. 그때 이후 도서관은 참고 장서를 갱신하고, 몇몇 전문(full-text) 저널과 신문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하고, 강의와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깊이 있는 한국 미술사 장서를 개발하였다.

6.1.5 규모

2016년 6월 현재, 한국 장서는 인쇄본 7,000책, 필름 및 DVD 270점, 인쇄본 연속간행물 130종, 그리고 전자저널 4,900종에 대한 접근과 전자책 4,500권을 포함하며, 여기에

근대 한국에 대한 포괄적인 영어 장서가 있다. 동아시아도서관은 연간 약 200-250책을 수서하며, 한국국립중앙도서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국연구자료지원(‘Books on Korea’) 프로그램, 국제교류진흥회(ICF), 한국영상자료원 등의 기관들로부터 약 100-200점의 기증자료를 받고 있다. 아래 표는 1990-2015년도의 한국어 소장 책수를 요약한 것이다. 지난 25년간 연 평균 성장율은 약 8%이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연 평균 350책(7% 성장율)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북미지역 동아시아 인쇄본 장서 내에 있는 한국 장서들의 전국적인 추세와 비슷하다. 전국 성장율은 4.66%로 중국어 자료(3.59%)와 일본어 자료(3.52%)의 성장율보다 높았다(Doll, 2016, p. 67).



[그림 10] 동아시아도서관 한국어 소장 책수, 1990-2015

출처: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eal.lib.ku.edu/CEAL/php/>에서 검색

6.1.6 전자자료

동아시아도서관협의회 위원회(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ommittee)의 한국자료 위원회 한국학 전자자료 분과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 전자자료 단체가입 프로그램”(Collective Subscription of Korean e-resources Program)을 통해 2010년 이후로 한국국제 교류재단이 여러 몇몇 한국어와 한국어/영어 전자자료 가입을 일부 보조해왔다. 전자자료비의 나머지는 KUL 예산으로 충당한다. 타이틀 VI 국가자원센터 기금이 또 1회에 한해 데이터베이스 가입비를 지원한다. KUL은 DBpia, KRpia, KISS(Korean Information Service System), KSI 전자책, RISS(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연행록 충간 증보판, 동아일보 아카이브, 조선일보 아카이브 등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전자자료 컬렉션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KUL은 또 한국학 데이터베이스(E-Korean Studies)에 가입했다. 데이터베이스 이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한국학 데이터베이스는 동아시아학 교수와 학생들 그리고 다수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한국학과 관련된 영어 데이터베이스로는 Bibliography of Asian Studies, JSTOR, Cambridge Histories Online, Films on Demand, Google Scholar, ProQuest Dissertations & Theses, Project Muse,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 Daily Reports, Lexis-Nexis Academic, NK News(북한 뉴스), Access World News가 있다. 또 몇가지 예를 들면, 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 Factiva, MLA(Modern Language Association) International Bibliography, EconLit, FIAF International Index to Film Periodicals Database와 같은 특정 분야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다. 글로벌 및 국제학 그리고 많은 다른 여러 단과대학 및 학과의 학생들은 영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한국어 교육을 받지 않고도 한국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6.1.7 인쇄본 자료

동아시아도서관은 북미지역 주요 대학출판사들의 한국 관련 인문학 및 사회과학 분야의 출판물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승인 계획을 통해 한국 관련 서양어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 승인 계획에 더하여, 한국학 사서는 또 슬립(slip) 선택을 통해 승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들을 선택한다. 한국어 장서는 학술 프로그램과 연구적 필요를 지원하는 1차 자료들로, 매우 선별적인 기준으로 개발된다. 1996년에 한국어 장서가 다시 구축되기 시작한 이래 KUL은 한국 장서 개발을 지원할 한국학 사서를 채용할 수 없었다. 1996년 이후 중국학 사서가 한국학 장서의 개발을 관리해왔고, 여러 한국학 사서 워크숍과 2014년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한 해외 한국학 사서 교육에 참석했다.

6.2 동아시아 사서들과 도서관 행정조직

중국학 및 한국학 전문사서와 일본학 전문사서가 대학에서 동아시아학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며, 교수들과 협력한다. 두 사서는 직접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학생과 교수,

직원 연구원들에게 연구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아시아 사서들은 또 동아시아 장서를 개발하고, 특정 학생들을 위한 주제를 개발하여 강의 안내서를 만들고, 도서관 자료 교육과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치고, 도서관 견학을 진행하고, 대외활동 프로그램을 조직할 책임을 맡는다. 보조 직원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자료 수집을 담당한다. 몇 명의 학생 조교들은 교육 및 대외활동 자료의 준비와 관련하여 사서를 지원하고, 지역학 서비스 데스크에서 도서관 이용자들을 돕는다. KU 도서관들은 2003년 이후부터 도서관의 기술적 프로세싱을 중앙에서 관리하였으며, 동아시아어 자료의 목록을 아웃소싱하기로 결정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사서들은 다른 서비스에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웃소싱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포맷들이 있으며, 참고 자료나 긴급 자료들은 동아시아 사서들이 로컬에서 처리해왔다. 동아시아 자료의 약 99%가 온라인 접근을 통해 검색 가능하다.²⁸⁾

2007년에는 동아시아도서관이 현재 국제장서(International Collections)로 알려진 국제지역학과(International Area Studies Department)로 흡수되었다. 국제장서 학과는 아프리카학, 동아시아학, 유럽학, 슬라브 및 유라시아학, 스페인학, 포르투갈학, 남미 및 카리브해 연안 국가학, 글로벌학, 중동학, 남아시아학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2년 도서관 조직개편 후에 국제장서(International Collections), 특별장서(Special Collections), 캔자스장서(Kansas Collection), 대학기록관(University Archives), 보존부(Conservation)를 특별장서부(Distinctive Collections)로 통합하였다. 이 부서는 특별장서 부학장(Assistant Dean of Distinctive Collection)(구, 특별장서 부장)이 책임진다. 조직개편위원회는 “그러한 단위들이 장서 구축, 공공 서비스, 기술적 서비스의 측면에서 비슷하다. 각 단위는 전문화된 언어 기술과 주제 지식이 있는 도서관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장서들을 관리하는 사서들은 또 잠재적인 기증자들과 구축한 관계를 통해 기증자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회를 자주 갖는다.”고 설명하면서 통합을 권고했다.²⁹⁾

28)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s://lib.ku.edu/>

29)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조직 검토팀 개요보고서(내부 문서). 개편된 도서관 구조표는 다음 참조: <https://lib.ku.edu/sites/lib.ku.edu/files/images/general/KULibraries-org-structure-july-2016.pdf>

6.2.1 한국학 사서의 도전과제와 수서 전략

동아시아도서관 한국학 장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과제는 한국 자료의 수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역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 북미 지역의 다른 여러 동아시아 장서들과 마찬가지로 전일제 한국인 사서가 없다. 일례로, 2015년도 CEAL 설문 통계에 따르면, 49개 기관이 한국어 단행본 인쇄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였으나 이 중 최소 18개 기관(조사 대상 도서관의 3분의 1)에서 전문 사서들이 1개 이상 언어에 대한 지역학을 담당하고 있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이것은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또는 동아시아학 사서들이 한국 장서를 관리하며 일부 한국 사서들의 전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교수들은 사서에게 필수 언어 자료 구입을 상당히 많이 권고해왔다. 잠재적인 동아시아학 교수 후보자가 대학 내 인터뷰에 참여할 때 그들은 도서관 장서를 둘러보고 사서들과 만나서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연구 자료에 대해 논의하고 또 신입 교수에 대한 도서관의 지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를 갖는다. 교수 후보자와 사서는 모두 이러한 초기 만남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이 만남을 통해 사서들은 교수 임용 후보자의 연구 영역에 대해 알게 되고, 해당 후보자의 이전 재직 기관 또는 모교의 도서관 자료와 본 대학 도서관의 소장 자료를 비교하여 본 대학 도서관이 추가할만한 중요한 자료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도서관은 신입 교수 임용과 새로운 연구 영역을 고려하고 그 필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한다. 사서들은 또 신입 교수와 동일 주제 분야에 있는 저명한 학자들 강의계획표 상의 읽기자료를 본 대학도서관의 소장자료와 비교하여, 대학 도서관이 필요한 자료를 구입하고 교수의 강의를 지원한다.

동아시아도서관 한국 장서를 강화하고 장서의 공백 부분을 메우기 위해, 사서는 주기적으로 월드캣(WorldCat)³⁰⁾을 검색하여 다른 유명한 기관들의 장서를 조사하고 주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구매할 자료의 서지 레코드를 작성한다. 한 가지 공통된 현상은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연구서의 상당수가 발행 후 얼마 안되어 절판된다는 점이다. 절판된 서적을 취득하는 일은 상당히 어렵다. 지역학 사서들에게는 수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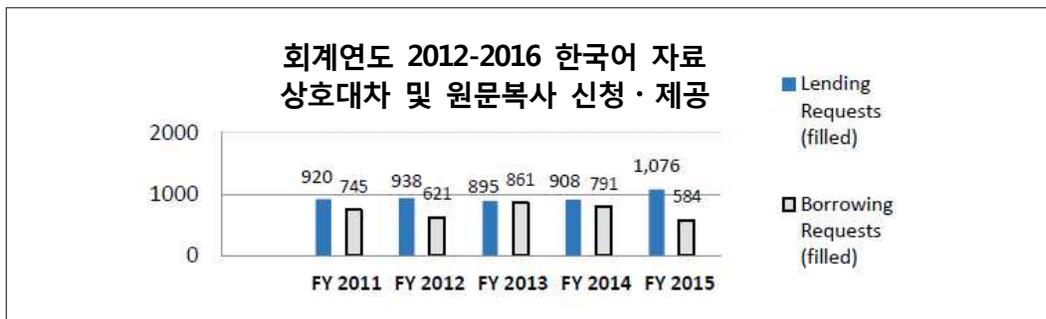
³⁰⁾ 월드캣(OCLC -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Inc.) <http://www.oclc.org/worldcat.en.html>. WorldCat.org는 오픈 액세스 목록이다.

위한 출장 및 인쇄본·전자본 벤더와의 좋은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신간 출판물의 경우, 동아시아도서관은 (맞춤형 주제와 전문적인 간행물이 있는) 특별 벤더 카탈로그와 서평, 리스트서브 이메일 소식으로부터 자료(1차 자료 선호)를 선택한다. 사서는 또 매년 동아시아도서관 상호대차 기록을 검토하여 더 관심을 요하는 책이나 주제가 있는지 평가한다. 동아시아도서관은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폭넓은 범주의 자료를 소장하는데 제한된 자원을 사용하기보다는– 도서관의 강점 분야에서 보다 깊이 있는 장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사서는 리스트서브 목록을 통해 교수 및 학생들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시험버전과 데이터베이스 피드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여 데이터베이스 구독 여부를 결정한다.

6.3 장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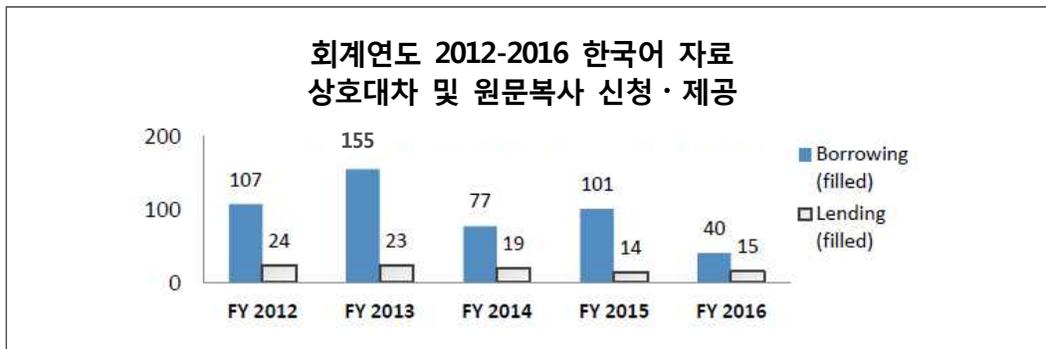
6.3.1 자원 공유

동아시아도서관은 매년 이용자들의 요구를 조사하고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지역적 및 국가적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동아시아어 도서관 상호대차 기록을 검토한다. 그림 11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KUL이 미국 내 다른 도서관들과 대출제공하고 대출신청한 동아시아 자료의 수를 보여준다. 지난 5년간 총 대출제공 자료 건수는 4,737건, 총 대출신청 자료 건수는 3,602건이었다. 대출제공 건수가 대출신청 건수 보다 1.3배 높았다.



[그림 11] 2011–2015 동아시아어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제공·신청
출처: CEAL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ceal.lib.ku.edu/CEAL/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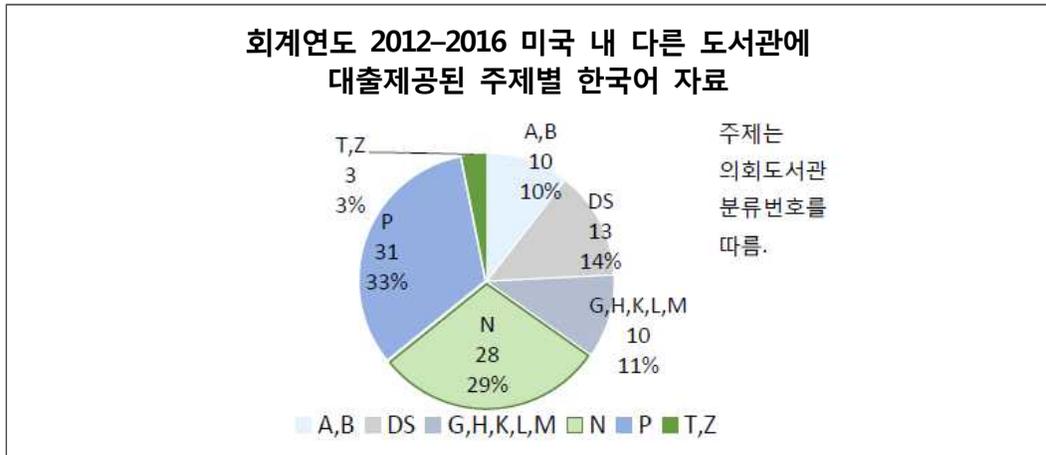
아래의 그림 12는 지난 5년간 총 480점의 한국어 자료를 대출신청한 것을 보여준다. 이 숫자는 다른 미국 도서관들에 대출제공된 자료 95점의 다섯 배이다. 이것은 동아시아도서관 중국어 및 일본어 자료 공유와 비교했을 때 대출신청과 대출제공의 비율이 반대임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이것은 성장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해야 할 많은 필요성을 보여주며(그리고 장서 예산 부족을 입증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 장서가 실제로 다른 도서관들의 일부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 회계연도 2012- 2016 한국어 자료에 대한 도서관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신청·제공
출처: KUL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캔자스대학교 이용자들은 종교, 역사, 미술사, 문학 자료들을 대출신청했다. 그림 13은 대출제공된 자료의 주제가 미의회도서관 분류에 따라 주로 역사(DS), 미술사(Ns), 문학과 영화(Ps)임을 보여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 49개 도서관이 KUL로부터 자료 95점을 대출신청했다. 연구도서관협회 회원이 아닌 14개 도서관(하나는 호주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5개 도서관은 미국 내 상위 10위 대학 한국 장서 중 7개를 포함하며 연구도서관협회 회원이다.³¹⁾

31) 2015년도 상위 10위 대학 한국 단행본 장서는 하버드, 워싱턴, 콜롬비아, UC 버클리, 시카고, 서던 캘리포니아, 하와이, UCLA, 토론토, 스탠포드 대학교이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그림 13] 회계연도 2012-2016 미국 내 다른 도서관에 대출제공된 주제별 한국어 자료
출처: KUL 상호대차 및 원문제공 서비스

6.3.2 인용 분석

2014년에 KUL 국제장서 사서들은 평가 및 자원공유 담당 사서들과 협력하여 특별 인용분석연구평가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KUL이 국제 및 지역학에서 교수진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14명의 동아시아학 교수들이 무작위로 선정되었다. 이들의 출판물(출판 연도 2005-2013)은 총 인용이 2,219회였다. 인용된 영어 자료가 86%를 차지했고, 동아시아어 자료는 14%였다. 이러한 인용을 KUL 소장 자료와 대조하여 이들 인용자료 중 몇 %가 KUL에 소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전체적으로 KUL은 인용된 영어 자료의 89%와 인용된 비영어 자료의 42%를 제공했다. 이 조사는 학제간 출판의 복잡한 특징들과 이용자 커뮤니티가 장서 전략의 평가를 어렵게 하는 방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도서관의 예산 결정에서 중요한 측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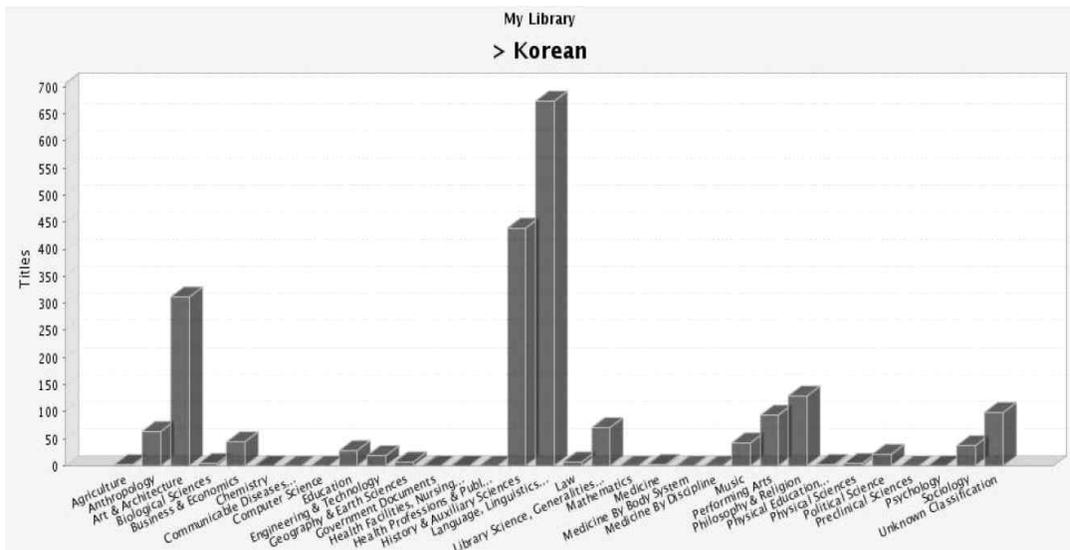
6.3.3 월드캣 장서 분석

동아시아도서관은 2010년에 월드캣 장서 분석(WorldCat Collection Analysis)³²⁾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장서 현황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유사 기관들과의 일대일

³²⁾ OCLC 월드캣 장서 분석 <https://www.minitex.umn.edu/Electronic/Analysis/>

비교에 있어 유용했다. 평가 결과 중 발견한 한 가지 사실은 대학원 수준의 미술사 연구 자료들이 미국 내에서 소장 규모 5-6위에 속한다는 점이었다. 동아시아도서관 소장자료의 절반 가량이 월드캣에서 12-15위를 차지했다. 이것은 KUL 동아시아도서관 장서의 위상과 지리적 위치로 인한 중요성을 보여준다. 동아시아도서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월드쉐어 장서 평가(Worldshare Collection Evaluation 또는 WCA)³³⁾를 이용하여 또 한 번의 장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림 14는 WCA를 이용하여 장서 내의 주제별 책 수(title number)로 2010년도 한국 장서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장서에서 미술사, 역사, 언어 및 문학이 강한 것을 볼 수 있다.

Korean Language Collection by Subject



[그림 14] 2010년 현재 월드캣 장서 분석을 이용한 주제별 한국어 장서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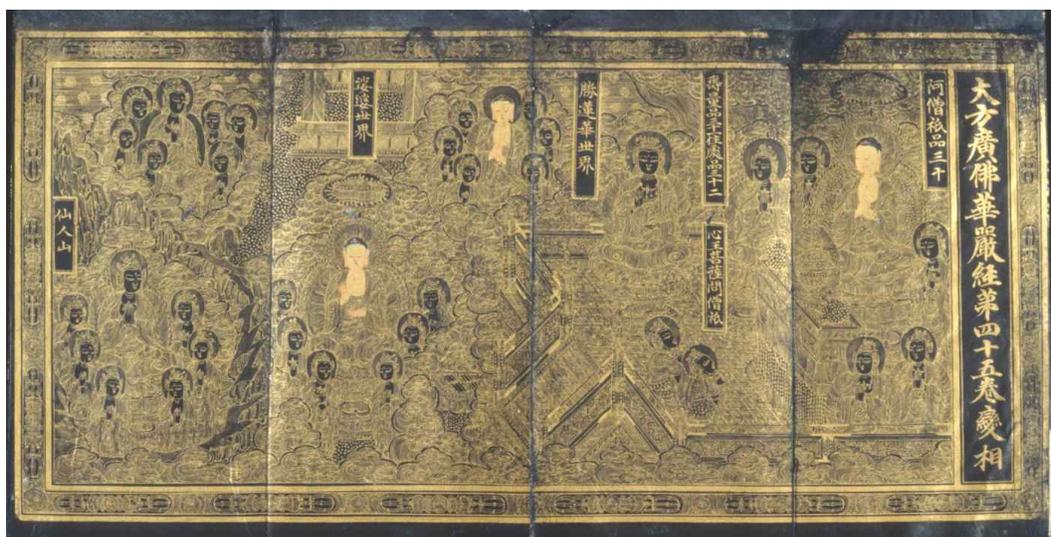
6.4 희귀 한국 장서

6.4.1 화엄경, 제45권, 약 1350년

희귀한 동아시아어 자료와 미술 작품들은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Kenneth Spencer Research Library) 특별장서에 소장되어 있으며, 희귀 자료의 현대 인쇄본이 대출용으로

33) OCLC 월드쉐어 장서 평가 <https://www.oclc.org/collection-evaluation.en.html/>

제공되고 있다. 수집된 정교한 희귀 필사본 중 하나가 화엄경 제45권이다. 권두삽화의 한자 제목은 大方廣佛華嚴經第四十五卷變相(대방광불화엄경 제45권 변상)이다. 이 자료는 당나라 시대(695-699)에 실차난타가 화엄경 필사본 제45를 번역한 것을 14세기 중반에 묘사한 것이다(Kim, 2003, p. 127). 권두삽화는 동물성 접착제로 금과 은가루 혼합물을 이용하여 남색으로 염색한 닥종이에 불교 경전 속의 장면들을 텍스트와 디자인, 삽화로 묘사한 중요한 자료이다. 대부분의 고려시대 채색 필사본들은 직사각형 모양에 절첩 형식으로 접혀서 읽기가 쉽고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1956-57 학년도에 본 대학은 리차드 루돌프(Richard Rudolph)로부터 이 필사본을 수집 하였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이 필사본은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미술박물관 (Asian Art Museum)이 주최하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일본 나라국립박물관이 공동 후원한 전시회 “고려 왕조: 한국의 계몽시대 918-1392”(Goryeo Dynasty: 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 to 1392)에서 전시되었다.³⁴⁾



[그림 15] 화엄경 제45권, 약 1350년. H: 4 3/8 in. x W: 12 1/4 in. (각 면) 남색 종이에 금가루로 권두삽화와 텍스트가 새겨져 있다. 출처: 캔자스대학교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MS D23

34) 고려 왕조: 한국의 계몽시대 918 - 1392년 <https://asianart.com/exhibitions/korea/index.html>

6.4.2 주자대전 속집 제3책(권7-11)

- 특별장서,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E436

또 하나의 희귀 장서는 신유학의 집대성자인 주희(朱熹 Zhu, Xi, 1130-1200)의 朱子大全續集 (주자대전속집: 11권)의 제3책으로,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편찬한 것이다. 한성(漢城)의 교서관(校書館)에서 인쇄되었다. 이 책은 금속활자(을해자: 1580 보주)로 인쇄되었다. 반곽은 10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1행에 18자로 구성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는 22.3 x 17.3 cm이고 인쇄된 책의 크기는 34.2 x 21.5 cm이다. KU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목판은 하버드 옌칭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59권과 맞는다.³⁵⁾

6.4.3 한국 책판

특별장서는 또 2016년에 캔사스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동아시아도서관에 기증한 2점의 한국 책판을 소장하고 있다. 각 책판의 양면에는 한자로 유교 사상이 새겨져 있다. 두 판 모두 양쪽 끝에 판이 굽는 것을 방지하도록 마구리가 있다. 이 마구리에는 책 제목, 장, 페이지 수가 적혀 있어 서가 배열이 편리하게 되어 있다. 각 판심에는 책 제목, 권 번호, 페이지 번호가 표기되어 있다. 한 판은 金堦(김굉)(c. 1867)의 龜窩先生續集 (구와선생속집)으로, 제3장의 13페이지와 14페이지에 해당한다. 다른 판은 金道和(김도화)(c. 1800년대 말)의 拓菴先生文集(척암선생문집)으로, 제7권의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해당한다. 한국에서 대부분의 유교 관련 목판이 조선시대에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판들이 당시 많은 한국 유학 서원들이 자리했던 경상북도 안동에서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³⁶⁾ 스펜서 연구도서관의 인쇄판, 석판 등 컬렉션과 함께 이 책판도 인쇄술사 강의에 사용되고 있다.

35) 하버드 옌칭도서관의 디지털 장서에 주자대전 59권이 있다. [https://iif-lib-harvard-edu.www2.lib.ku.edu/manifests/view/drs:9345238\\$1i](https://iif-lib-harvard-edu.www2.lib.ku.edu/manifests/view/drs:9345238$1i). 또 한국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청구기호 D152.416-주71유 v.70과 유사하다.

36) 한국국학진흥원(Advanced Center for Korean Studies): 한국 목판: ACKS 장서 <http://mokpan.ugyo.net/en/significance/advanced-center-for-korean-studies.html>



[그림 16] 구와선생속집 제3장 13페이지 책판 원본. (c. 1867). 양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반곽은 10행이 있으며, 1행에 20자씩 들어 있다. 광곽은 사주쌍변(四周雙邊)이다. 판심에는 내향2엽화문어미와 제목, 권 번호,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다. 광곽의 크기는 19.5 cm x 17 cm이다. 출처: 캔사스대학교 케네스 스펜서 연구도서관.



[그림 17] 구와선생속집 제3장 13페이지. [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8i](https://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8i) (왼쪽 페이지 이미지)

[https://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9i](https://iif.lib.harvard.edu/manifests/view/drs:47324759$159i) (오른쪽 페이지 이미지)

7. 이용자 중심의 네트워크 서비스

한국학 사서의 일차적인 역할은 한국에 관한 본 대학교의 강의와 학습,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장서를 구축하고 지침과 참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더하여, 연구도서관은 자구체우스키(Jaguszewski)와 윌리엄스(Williams)(2013)가 리에종 사서(liaison librarian)의 여섯 가지 새로운 역할에 명시한 대로 리에종의 전통적인 역할 변화라는 전국적 동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KUL이 2012년도에 실시한 조직개편은 리에종 역할에 대한 동향 중 일부를 반영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21세기에는 지역의 대학교육 장서와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들이 쉽게 국가적 및 국제적 연구 서비스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일제 한국학 사서가 없는 도서관들에게는 두 개의 온라인 한국학 참고 서비스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한국학 사서에게 물어보세요)는 북미지역 한국 장서 컨소시엄(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의 회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들은 askkorea@googlegroups.com³⁷⁾에 참고 질의를 보내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또 다른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INKSLIB(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Studies Librarians)가 제공하는 “Ask a Librarian for Librarians”(사서가 사서에게 묻는다)이다.³⁸⁾ 두 서비스는 모두 도서관 이용자와 민간 학자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

대학교육 기관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폭넓은 관계를 추구하고자 기관의 사명을 확대해감에 따라서 대학 사서들도 이용자 커뮤니티, 도서관 컨소시엄, 기증자 등과 더 협력할 기회를 추구하고 경험과 지식,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지속가능한 정보 자원들을 생성해야 한다(Gibson & Dixon, 2011).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연구적 요구들은 대학 사서들의 연구 지원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인문학, 강의와 학습 지원 역할의 확대, 디지털 학술활동의 지원, 이용자 경험, 저작권과 지적재산권 및 학술적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Jaguszewski 및 Williams, 동향 3, 2013). 그 한 예가 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1960-1980년대 출판물들을 디지털화하기

37) 동아시아도서관평의회 한국자료위원회(Committee on Korean Materials) 홈페이지. Ask a Korean Studies Librarian: <http://www.eastasianlib.org/ckm/linksandresources.html>

38) 국립중앙도서관. INKSLIB Ask a Librarian for Librarians <http://inkslib.nl.go.kr/ask/askLibrarianList.jsp>

위해 2006년부터 KU ScholarWorks의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 디지털 리포지터리(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ommunity digital repository)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이다. 2006년 이후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의 디지털 리포지터리에 700여 점 이상이 포함되었다.³⁹⁾ 한편, 대외활동으로 지역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센터의 대외활동 부장과 협력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 사서들은 다양한 대외활동을 위해 중학생들을 위한 비디오를 제작했다.⁴⁰⁾ 또 구술사를 통해 동아시아의 경험을 보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써 2012년 이후 동아시아 학자들과 전문가들과의 비디오 인터뷰를 진행해왔다.⁴¹⁾

8.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배포

장서의 성공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얻기 위해 2012년 봄에 동아시아 사서들은 동아시아학 교수진 및 대학 도서관 전시위원회(KU Libraries Exhibition Committee)와 협력하여 “동아시아학 연구 기념”(Celebrating East Asian Studies Scholarship)⁴²⁾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 전시회는 교수 9명의 연구 프로젝트와 출판물, 연구 과정에서 그들이 이용한 자료 유형을 선보였다. 전시회와 함께, 동아시아학 연구에 관한 패널 토론을 동반한 오픈 하우스(Open House)⁴³⁾가 있었다. 이 행사에서는 장서의 최종 결과물 중 하나인 새로운 지식의 생성과 배포를 성공적으로 전시함으로써 동아시아학을 홍보하고 도서관의 장서들이 강조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사서들은 또 동아시아학센터 도서관교수위원회 의장(Library Faculty Committee Chair)과 협력하여

39) KU ScholarWorks 동아시아학커뮤니티센터: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69>

40) 온라인 홍보 비디오의 예: 후로시키 튜토리얼(Furoshiki Tutorials)(K-12 교육지침 시리즈)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jZDWTEXFea5Q6wdh5qXd6uKfRG_PQdWP

41) 동아시아학센터 교수 인터뷰 시리즈: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69>. 인터뷰 예: 어느 인류학자의 아시아 여행(An Anthropologist's Asian Journeys)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8600>

42) ‘동아시아학 연구를 기리며’ 온라인 전시회는 다음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http://liblamp.vm.ku.edu/omeka/exhibits/show/east>

43) ‘동아시아학 연구를 기리며’: 오픈 하우스 <http://liblamp.vm.ku.edu/omeka/exhibits/show/east/reception-photos/opening-reception/>

해마다 동아시아학 교수 연구포럼(East Asian Studies Faculty Research Forum)과 대학원생 연구포럼(Graduate Student Research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포럼들을 통해 교수와 대학원생들은 동료들과 함께 그들의 연구 주제와 새로운 논문들을 공유하고 차례로 피드백을 얻는다. 많은 학생들이 이처럼 허물없는 모임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보이는 기회를 환영한다. 사서들은 이러한 발표들을 통해 새로운 연구 방향과 필요 자료들에 대해 알게 된다.

9. 결 론

제한된 장서 예산으로 인해 캔자스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 장서는 느리게 성장해왔으며, 전일제 한국학 사서가 없는 북미 지역 내 다른 37개 한국 장서와 공통으로 계속해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CEAL Statistics Database, 2016). 사서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맞서 서로 독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장서와 서비스 전략들을 공유하고 북미 지역 내 한국 장서들 간의 공동협력 기회를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Statistics Database in University of Kansas Libraries [database online]. Lawrence, KS. Retrieved from <http://ceal.lib.ku.edu/CEAL/php/>
- Doll, V. (2010). Fifty years of the East Asian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Kansas. In X. P. Zhou (Ed.), *Collecting Asia: East Asian Libraries in North America, 1868–2008* (pp. 242–255). Ann Arbor, Mich.: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 Doll, V. (2016). Council on East Asian Libraries (CEAL) 2015 Annual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Summary. *Journal of East Asian Libraries*, 162:63–89, Article 6. P. 5, Retrieved from <http://scholarsarchive.byu.edu/jeal/vol2016/iss162/6>
- Gibson, C. & Dixon C. (2011). New Metrics for Academic Library Engagement. Retrieved from http://www.ala.org/acrl/sites/ala.org/acrl/files/content/conferences/confsandpreconfs/national/2011/papers/new_metrics.pdf
- Jaguszewski, J. M. & Williams, K. (2013). New Roles for New Times: Transforming Liaison Roles in Research Libraries. Retrieved from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nrnt-liaison-roles-revised.pdf>
- Kim, K. P. (2003). Goryeo dynasty: Korea's age of enlightenment, 918–1392. San Francisco: Asian Art Museum.
- Reed-Scott, J. (1988). NCIP Manual: Manual for the North American inventory of research library collections (Rev. ed.). Washington, D.C.: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Office of Management Services.
- 동아시아학센터 웹사이트: <http://ceas.ku.edu>
- 동아시아 장서 웹사이트: <https://lib.ku.edu/east-asian-collection/about>
- 동아시아 언어 및 문화학과 웹사이트: <http://ealc.ku.edu/>
- 한국학 도서관 주제 가이드: <http://guides.lib.ku.edu/c.php?g=94977&p=617480>
- KU ScholarWorks, 동아시아학센터: <https://kuscholarworks.ku.edu/handle/1808/1069>
- 캔자스대학교: <http://ku.edu>
- 캔자스대학교 도서관: <http://lib.ku.edu>